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4월 21일(금) ..(음력 3월 25일).. Пятница 21 апреля 2017 г. № 15(11673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2017년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 설명회



▲ 제2차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을 위한 설명회가 4월 19일(수)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관련 기사 2면)
(이예식기자 촬영)

### 단신

#### 촌 주민들을 위한 15건 프로젝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변 촌들과 우글레고르스크구역 촌들에서 주민들의 제안과 요청에 따른 목적물들이 주정부의 지원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사할린주정부에서 지방주민들의 제안에 대한 프로젝트 건설비 지출문제로 소집된 회의에서 15건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올해는 우선 우글레고르스크 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시민들의 프로젝트를 실시해 보기로 했다. 프로젝트에는 2가지 조건으로 첫째, 주민들의 각 프로젝트는 주예산에서 300만루블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둘째, 모든 프로젝트는 1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

우글레고르스크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외곽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스포츠-문화 대상들에 대한 제안을 했다. 그외 거리 조명등 설치와 문화적 거리 조성을 요구하였다. 올해는 프로젝트가 모두 15건으로 내년에는 155곳의 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전망이다.

#### 사할린, 첫 아동테크노파크.

올해 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첫 아동테크노파크가 개관될 전망이다. 이 아동테크노파크에 400명 어린이들이 아크로크 장, 로보트기술 장, 생산디자인 장과 IT- 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3 김나지야의 초등생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인 <퀸토리움(활동장)>미학-기술센터>공사가 금년에 시작된다. 개관식은 2019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할린주 농산물 생산량 증가지표 1등

사할린주는 농산물 생산량 증가지표로 러시아 극동지역들 중에서 1등을 했다. 도서지역은 2017년에도 극동에서 1등을 유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사할린주정부 드미트리 네스체로브 부수상은 사할린주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언급하였다.

최근 3년간 사할린주의 농산물 생산량이 1.3배 증가했음을 회의에서 강조하며 2016년에 우유 생산량은 2015년에 비해 2.3%, 육류 24%, 달걀은 5.3% 증가되었다고 보고했다. 드미트리 네스체로브 부수상에 따르면 사할린주 농업분야는 농산물 생산량을 증가시킬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 돌린스크, 아동예술학교 개교

돌린스크시에 화려한 3층짜리 아동예술학교(300석)가 개교했다. 돌린스크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은 20년 동안 교사 없이 낡은 건물에서 음악을 배워왔다. 총면적이 5000m<sup>2</sup>의 신교사는 3층짜리와 1층짜리 벽돌로 지어져 있다. 1층에는 무용실, 합창단 교실, 취주악단실, 조각실, 2층에는 음악교실, 연극실, 그리고 식당(24석), 3층에는 미술실, 도서관, 교장·교직원실이 마련되었다. 지하층에는 전시관이 자리를 하고 있다. 지금 등교하는 284명의 학생들은 이곳에서 음악, 미술 등을 배우고 있다. 돌린스크아동예술학교 성악양상블은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국제아동예술축제에서 우수상도 따냈고 최근에는 그루지아 국제아동예술콩쿠르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돌린스크아동예술학교 개교식에 참석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와 돌린스크구역 알렉사드르 투가레브 시장은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 주지사, 러시아 대통령에게 사할린주 사회경제현황 보고

지난 13일(목) 러시아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 주지사가 만남을 갖고 2016년도 지역개발의 결과와 현안 과제를 논의하였다.

지난해 결실로 사할린주는 지역개발에 긍정적 지표를 보였다. 주지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사할린지역 총생산량은 6% 이상으로 증가하고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채취량도 2015년에 비해 1/3 증가된 지표를 나타냈다. 지난 1년 간 농산물 생산량도 11% 증가되고 소, 돼지 및 조류 등 두 수도 증가되었다.

주택 부문에서 사할린주에서는 러시아연방 <5월>의 대통령령과 낡은 주택의 복구프로그램이 활발히 실시되어 총 22만m<sup>2</sup>의 주택이 이미 건설하였다.

"주예산 자금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낡은 주택 복구프로그램을 실행하여 5년간 사할린과 쿠릴 섬들에서 1만가구가 신아파트에 입주하게 되고, 47만m<sup>2</sup>의 낡은 주택들은 제거될 전망이다"라고 주지사는 밝혔다. "주내에서 작년에 총 34만m<sup>2</sup>의 주택을 준공하였는데 그중 11만m<sup>2</sup>는 사회적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할린주에서는 임대아파트 공사가 활성화되고 있다. 임대아파트에는 공공예산분야(교사·의사·문화기관 직원 등)와 군기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으로 이들에게는 임대료의 50%만 지불할 특권이 제공된다.

현재 신규 임대아파트 14동(400세대)이 준공되어 2만1000m<sup>2</sup>가 운영되었다. 올해는 16동의(500세대) 신규 임대아파트를 준공할 계획이고 2020년까지 쿠릴섬들을 포함하여 사할린주는 25만m<sup>2</sup>(45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준공하게 된다.

지역정부 계획의 중요한 사항들 중 하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장애아 부양가정을 위한 사회보장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오늘날 사할린에서 5명 또는 그 이상 자녀들을 부양하는 다자녀가정에는 주택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014년에 3000여 명이 사할린주를 떠났다면 2016년에는 500명이었다. 자연적인 인구증가도 나타났고 사할린주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신생아 출생률이 러시아 평균 수준에 비해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도 나왔다. 사할린주에서 사망률이 낮아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다자녀가정의 수가 늘어나 2016년에만 해도 762세대에서 총 2500명의 어린이가 부양되고 있다"고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강조했다.

인구 수와 어린이 수가 증가됨을 고려해서 주에서는 학교 공사 프로그램을 이미 구상하였다. 5년간 학교에서 오전, 오후반의 교대가 폐지될 수 있도록 10개소(총 5000석)의 일반교육학교를 완공할 전망이다.

보건분야에서는 소진료소 공사가 계속되고 사할린주립소아과병원과 응급치료가 새로 완공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분야에서는 인재 양성 방안 세울 과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사할린주보건분야에서 확보된 의사들은 약 46%다. 전 러시아에서는 평균 약 39.2%다. 주지사의 의견에 따르면 도서지역 보건분야는 "양에서 질로 이행해야 한다. 즉, 심혈관질환과 암병 치료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할린주 가스화사업도 긴급 대책을 취해야 할 문제이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가스프롬>주식회사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스화 수준은 전 러시아 지표에 비해 5배나 낮은 상태다.

사할린가스화 프로그램으로 <가스프롬>주식회사가 완공한 보일러, 가스배관 등 대상들을 하루 빨리 운영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주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사할린가스화 수준을 2-3배, 즉 30-35%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만남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 잔류한인 1세 25명, 제2차 초청진료 명단 확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올해 처음 시작한 한국초청진료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의 건강 증진을 돕고 한민족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월에 1차가 진행되었고, 2차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을 위한 설명회가 4월 19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관계자 5명(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김진숙 사무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류호균 본부장과 정명구 주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숙하 진료부장과 박서희 대리)이 방문했다.

분들에게 항공료, 숙박식비, 진료비가 지원되며 보호자(1인)는 항공료와 숙박식비를 지원받는다.

사할린에서 진행되는 초청진료 절차는 첫째, 희망자의 여권 사본과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제출된 서류와 상담을 통해 한국에서 치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최종 진료받을 사람을 사할린에서 선정한다. 상담시 환자는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을 영문으로 제시하고, 과거 병력을 알려주고



4월의 봄소식이 가득한 가운데 있던 사할린에 19일 아침에는 밤사이 거친 눈보라로 거리엔 약 40cm의 눈이 쌓였고, 차 운행이나, 사람들의 보행도 어려웠다. 어르신들이 제 시간에 당도할 수 있을 지가 걱정되는 가운데 사할린 각 지방 어르신들이 설명회 전날 이미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해 시내 교통 사정으로 설명회가 1시간 늦추어졌지만 행사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었다.

설명회를 연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초청진료 사업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지난 1월에 22명이 질환으로 수술과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받고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주관해서 초청진료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사할린 잔류 1세대는 약 600명인데 1세대 어르신들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좀더 빨리 건강 검진을 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2차 검진문제로 사할린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560명은 좀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요."

설명회에는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떤 진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명구 주임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숙하 진료부장이 설명했다.

1차에는 일부 보호자가 동반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2차에는 꼭 보호자가 동반한 진료로 좀더 순조로이 진행될 거라 기대했다. 2차에서도 진료받을

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선정된 분들은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국하도록 한다.

이번 2차 접수 상황은 코르사코브 2명, 크라스노고르스크 3명, 네벨스크 2명, 사흐초르스크 4명, 마카로브 1명, 유즈노사할린스크 18명으로 총 30명과 그 외 3명은 재진 요청이었다. 그러나 전숙하 진료팀장에게서 검진받은 결과 초청진료로 25명이 선정되었다. 당뇨나 고혈압을 비롯한 노인성 만성 질환은 단기간에 치료가 불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청진료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뤄진다. 이 병원의 전숙하 진료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으로 치료에 양방과 한방을 겸하여 이용함으로써 질병치료에 최대 효과를 주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진료 검사시 엠알아이(MRI)와 스크린 검사, 씨티(CT), 혈액 검사, 위내시경 등을 통해 병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병의 중환과 가벼움에 따라 1주에서 1달까지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입원을 위해 병동한 동에 2인 1실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데 병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된다.

전숙하 진료팀장이 입원 생활에 있어 당부하는 점은 첫째, 병원 입원시 환자

들에게 무단외출은 금지되어 있다. 둘째, 병원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병원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이다. 셋째, 환자 팔찌를 꼭 차야 한다. 넷째, 환자의 귀중품은 특별히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품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환자가 복용해온 약의 이름과 전에 진료받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섯째, 입원실에서 개인적인 전열기구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일곱째, 병원 내 휴게소 이용을 지원해 준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진료를 요청할 때는 별도로 진료하지만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환자들이 질병 치료 후 사할린으로 돌아와서 장기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한인회와 협의하여 약 처방전을 주어 러시아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류호균 본부장은 사할린의 잔류 1세대 약 600명에 대한 치료 계획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올해는 2차까지이고 한 해에 1회차로 진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할린을 처음 방문한 류 본부장은 "처음 사할린에 왔습니다. 한국은 봄인데 여긴 아직 겨울임을 느꼈습니다. 어제 왔는데 몰아치는 눈보라로 우리를 열렬히 반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 한인문화회관 앞에 있는 기념비석을 보고 참 애환이 서린 곳임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신 동포들을 대상으로 초청진료의 길을 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바라는 1세대 어르신들 모두 다 한국으로 초청되어 진료를 받으시기까지, 몇 차례가 되든 진료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라고 표명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개발에 협력·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해외 재난 긴급구호·북한 보건의료 협력·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의료기기 및 의약품 지원 등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설명회를 찾아온 어르신들 중에는 다리가 아파 그 짧은 계단도 겨우 오르거나, 부축을 받아 올라갈 정도의 분도 있었다. 이번 2차 초청진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속히 한국에서 치료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돌아오셔서 좀더 편히 사시길 기대해 본다.

(취재: 박혜신/글, 이예식/사진)

# 〈사할린 새고려 신문사〉 이예식 기자, 부산에서 사진전 "귀환" 개최



오는 4월 22일(토) 부산 40계단 문화관 전시실에서 이예식기자(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사진전 "귀환"이 5.13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부산해동동포문화·교육네트워크(부산동포넷), KIN(지구총동포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작가회의, (사)요산기념사업회,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까, 40계단문화관, 미로한의원 등이 후원한다.

4월 22일(토) 오후 2시부터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작가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개막행사는 남산놀이마당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소리꾼 양일동님의 민요, 하연화(경성대 겸임교수)님의 살풀이춤이 선을 보인다. 이후 장영식(다큐멘터리 사진작가)님의 사회로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이날 개막식에는 부산시 기장군에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40명도 초청되어 전시관람을 함께 할 예정이다.

2016년 눈빛출판사의 사진집 이예식, "귀환"(возвращение)과 김지연, "사할린의 한인들" 출판기념 사진전 이후 작가와 눈빛출판사가 작품과 액자를 KIN(지구총동포연대)에 기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KIN에서는 사할린 동포들도 함께 하고, 사할린 동포들을 널리 알리는 '찾아가는 전시회'를 기획하였고, KIN의 1월 사할린 방문단에 동행했던 (사)부산민예총 회원들과 협의로 이번 전시가 성사되었다.

이번 전시는 과거 사할린 동포들이 배를 타고 한반도를 떠났던 그 부산으로 '귀환'하는 것이며, 그 귀환의 당사자인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동포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그동안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KIN 제공)

# 이 모 저 모

## 사할린주민들, 자전거 경주로 전승절 뜻 기리다

사할린주에서 전승절을 기념하여 다시금 코르사코브-유즈노사할린스크 구간 자전거 경주가 진행된다. 주스포츠부 홍보실의 보도에 따르면 자전거 경주는 5월 8일 11:00시 코르사코프 항구도시의 중앙광장에서 출발할 예정인데 경우에 따라 출발시간은 변경될 수도 있다. 이 행사에는 모든 희망자가 참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00명이 참가하였지만 올해엔 이 기록이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코르사코브-유즈노사할린스크 간 코스에 대규모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경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담당 부서는 다짐을 보였다.

자전거경주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주중앙도시 '승리광장'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의 전사자들을 추모하여 호국보훈의 불에 화환을 헌정하고 묵념을 할 예정이다. 이날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는 전체 자전거경주 참가자들에게 참가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광장에서는 군용밥을 나누기 위해 <야전 주방>이 열린다.

## Сахалинцы посвятят Дню Победы велопробег

Велопробег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Победы, вновь пройдет в острове регионе.

По информации пресс-служб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порта, колонна стартует с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8 мая в 11:00.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ремя может измениться. В акции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ось 100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еются побить этот рекорд.

- Мы учли все замечани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на трассе Корсаков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копилось огромное пробка, постараемся в этом году подобного не допустить, - пообещали в ведомстве.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елопробега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участники возложат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и почтут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ит сертификаты об участии. Также на площад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олевая кухня.

## 주 노동조합, 5월 1일 행사에 초대

사할린주 노동조합연맹은 2017년 노동과 봄철 명절을 기념하는 5월 1일 행사와 행진에 노동조합 회원, 기업과 기관의 임직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동 연맹 홍보실이 전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측은 주정부와

주중앙도시 행정부의 협조로 5월 1일 행사를 조직했다.

작년과 같이 2017년의 명절행렬은 두 중대로 나눠 유즈노사할린스크 두 곳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시청 건물 앞에서 합류하게 된다.

행렬 구성은 5월 1일 현지시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할 예정이다.

중앙행렬은 콤무니스티체스키 프로스펙트와 체호브 거리의 사거리에서 시작되고 남행렬의 모집장소는 레닌 거리와 포포위츠 거리 사거리이다.

행진은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30분간 진행되고 그 이후는 주중앙도시 여러 장소에서 흥미로운 명절 행사들이 펼쳐질 전망이다.

노동조합 측은 행진 참가자들이 5월 1일 행사시 노조가 승인하고 주장하는 슬로건에 사회노동을 반영한 주제를 사용하길 권했다. 올해 사할린주 노동조합들은 25개 주제 구호를 승인했다.

## Областные профсоюзы приглашают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ай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оюз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фсоюзов приглашает член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юзов, трудовые коллективы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работников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 мая 2017 года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шествии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Празднику Весны и Тру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рганизации.

(8면에 계속)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

역사적 통합의 '첫발'을 내딛다  
제16회 재외한인 언론인대회 '본격 개막'

통합을 위한 공동대회로 개최  
각계 환영과 축하 이어져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가는 뜻깊은 대회  
재외한인 언론의 화합과 역량강화의 분수령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가 본격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한인언론 단체의 양대산맥으로 활동하며 각각의 행사를 치러왔던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이하 재언협)와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이하 세한연)가 통합을 전제로 8년만에 함께 치르는 공동대회다.

재언협과 세한연이 공동주최하고 (사)대한언론인회와 (사)아시아 기자협회가 공동주관한 제16회 재외한인언론인대회는 16일(토)부터 22일(토)까지 서울과 대전, 강릉과 평창의 일정을 소화하며 '재외한인언론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단결로

17일(월) 오후 6시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전 세계 재외한인언론사들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어 화합과 단결을 향해 질주를 시작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개회사를 통해 공동대회 개최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세한연 전용창 회장은 "세계 한인언론은 남북한 인구의 10%에 달하는 세계한인들에게 고국의 소식과 한인사회 정보를 전해주는 소통의 창구인 동시에 대한민국 외교의 소중한 자산인 세계 한인들의 첨병"이라며 한인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대회장인 재언협 김소영 회장은 "세계 속의 한인언론인들이 통합된 하나의 단체로서 제도 약하는 의미있는 대회"라고 규정하며 "화합과 단결로 재외한인 언론의 역량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각 정당의 동포정책과 재외한인 언론 진흥 방안 모색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존재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통합을 위한 공동대회, 정치권 축하 줄이어

개막식이 열린 17일(월)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법정선거운동 개시일. 재외국민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28개국 48개 도시에서 90명에 달하는 재외한인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를 비롯해 국민의 당 안철수 선거운동캠프의 송금주 수석 대변인, 국회 외교통일상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김성곤 이사장은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화합의 물꼬를 튼 공동대회에 축하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공동대회 개최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외동포들의 뉴스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 언론에 감사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위로 대통령



선거가 급박하게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30만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율을 기록한 것은 조국의 위기에 공감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길을 트기 위해 나선 애국심의 발로"라며 "720만 재외동포가 자랑할 수 있도록 가짜 아닌 진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대회 개최를 환영하고 통합을 통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재외동포청 설립 △선진형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 △조선족과 고려인의 처우 개선 등 3가지 재외동포 정책 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선거캠프 송금주 수석 대변인은 "아직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불거진 좌우논쟁, 태극기와 촛불의 갈등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라며 "양 단체가 통합을 위해 공동대회를 이뤘듯이 새 지도자가 대한민국도 새 지도자가 선출된 이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명현 국민의당 재외국민위원장,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김홍태 연합뉴스 코리아글로벌센터 본부장, 김송희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김소희 세계한인여성협의회 대표총재, 박다이나나 세계문화협회 회장, 이향숙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통합을 전제로 개최된 의미있는 공동대회

한편 이날 대회에는 2002년 한국기자협회장으로서 재외동포 기자 초청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아시아 기자협회 이상기 회장이 참석, 역사적인 공동대회 개최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이상기 회장은 화합과 단결의 앞글자를 따 이번 공동대회를 '화단'에 비유하며 "전용창 회장 김소영 회장이 화단을 잘 세웠으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잘 가꿔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 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흘 밤낮을 걷는 기자정신이 뿌리가 되고, 재외동포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흘려왔던 땀과 눈물이 모여 화단을 이뤘다"며 "후배들을 위해 피땀을 아끼지 않는 상머슴이 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을 부탁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재외한인언론인대회는 2002년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재외동포기자 초청대회'로 시작했다. 이후 2009년 (사)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가 독자 구성됐고 2010년 4월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가 출범해 지금까지 별도의 행사를 치러왔다.

이번 대회는 2016년 가을대회가 끝난 10월 17일, 양측에서 선임된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 7개항으로 이뤄진 통합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재외한인언론인대회 공동취재단]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일본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 택시(택시) 운전이나 할까 싶어 이력서를 냈어. 그런데 문 앞에 운전수 모집이라고 딱 써놓고도, 내 이력서를 보더니 안 된다는 거야. 한국인이어서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악질로 굴었다고."

"대통령에게 따졌더니 중앙정보부로 끌고 가데"

그러면 일본 땅에서 동병상련을 앓고 있던 다른 동포들은 어땠을까? '민단(재일본 대한민국 민단)'과 '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은 사할린에서 온 한인들의 귀환운동을 적극 도와주었을까, 아니면 귀찮아하며 외면했을까? 이에 이희팔 선생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상처를 입었다'며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참 이상하던 말이야. 민단 사람들이 앞장서서 (귀환운동을) 해주면 고마울 텐데, 반대로 훼방을 댔거든.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몰라. (그래도) 신세는 민단한테 졌지. 총련에서도 사람이 오긴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더러 늘 똑같은 말만 했어. 왜 사회주의 국가를 놔두고 여기로 왔느냐고. 그때마다 내가 그랬지. 소문과 실상은 다르다. 내가 거기서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말 하려면 아예 오지 말라고."

일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민단과 총련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던 한인에게, 남한 정부 역시 가혹하기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다. 오죽하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말실수' 하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까지 했을까.

"당시 동아일보 신문사가 운영하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내가 따졌지. 이승만과 윤보선, 그리고 현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바로 끌고 가더라고."

다행히 큰 고초를 겪지 않고 곧바로 풀려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이희팔 씨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반공'이 제1의 국시인 정권 아래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할린과 일본에서 그랬듯, 꿈에도 그리워한 남한에서조차 자신은 주변인이자 경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눈물의 편지, 한국과 사할린을 잇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희팔 씨는 사할린에 남아 고국을 그리며 눈물짓고 있을 동포들을 생각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적십자사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분주히 뛰어다녔다. 또한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의 활동과 그 성과를 알고 싶어 하는 사할린 한인들에게 꾸준히 소식을 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언제부턴가 사할린에서 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씩 배달되는 편지에는 하나같이 발신자의 본래 한국 주소와, 여전히 거기 살고 있을 부모 형제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심지어 편지에 담긴 내용마저 똑같았다. 그건 바로 "내가 사할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려 달라"는 절절한 '마음'이었다.

이희팔 씨와 그의 동료들은 사할린 한인들의 눈물 젖은 편지를 정리해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진행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부치지 못한 편지들이 일본 땅에 속속 날아들었고,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는 그것을 다시 바다 건너 사할린으로 띄워 보냈다. 이렇게 한국과 사할린을 편지로 잇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한 장의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이 서로 오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빨라야 두 달. 더욱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하루 일당이 250~300엔 하던 당시에 한국으로 편지 한 통 보내는 데만 50엔이, 사할린으로 보내는 데는 120엔이 들었다.

"편지를 이래 보면은 그냥 눈물이 흘러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거기 있었잖아. 그들이 체험한 걸 나도 똑같이 체험했으니까 사정을 알 수 있단 말이야. 편지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가슴 절절한 편지를 보내오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돈 없고 힘들다고 외면할 수 있겠어요."

편지로 한국과 사할린을 잇는 일이 꾸준히 계속되자, 한국에서도 그것을 돕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가장 먼저는 박노학 씨의 아들 박창규 씨가 나섰고, 1970년에는 <가라후토 억류교포 귀환추진회(후에 중소기업가족회로 변경)>가 만들어지면서 대구에서도 편지 왕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희팔, 박노학 씨는 그렇게 오고가는 편지들을 전부 정리하여 '사할린에서 귀환을 희망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두 1천744세대 6천924명이 포함된 명부가 만들어졌다.

그런 가운데 KBS 사회교육방송(현재는 한민족방송)이 「사할린 동포에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할린 한인과 국내 가족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쿄에 사서함을 설치해 한국과 사할린 사이에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1972년 4월 3일부터 시작된 그 프로그램은 아침 5시와 밤 9시 두 차례에 걸쳐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또한 이희팔 씨와 그의 동료들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시행된 것이었다고 한다.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первое время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когда корейская сословная система еще только складывалась, выходцы из простолюдинов также могли сдавать экзамены и занимать после этого чиновничьи должности. В принципе именно такая система существовала в Китае, откуда Чосон ее и позаимствовал. Однако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переход между сословиями становился все более трудным делом, простолюдином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е право на службу государству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поднятие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становилось все сложнее и сложнее. В конце концов к концу XVI в. право сдачи экзаменов на гражданскую службу окончательно закрепилось только за янбанами (простолюдинов вообще не допустили), превратив янбанское сословие в наследственную, закрытую группу. Правда, простолюдины могли по прежнему сдавать военные экзамены и служить государству в армии.

В первые столетия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количество янбанов было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велико, они составляли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Однако жили янбаны, естественно, лучше других сословий, детская смертность в их среде была не такой большой, как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ругих сословий, а религия стимулировала рождаемость. В результате численность янбанов постепенно увеличивалась.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естественно вредило государству.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янбанов становилось все больше и на всех чиновничьих должностей не хватало. Тогда власти стали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для разрешения этой ситуаци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были приняты меры для уменьшения числа янбанов. Поскольку в Корее официально существовало многоженство – обычно янбан имел одну законную жену и несколько наложниц – и детей у янбанов было обычно много, в XV в. был принят ряд законопроектов, по которым дети от наложниц (а они могли быть и из простолюдинов, и даже крестьянками-ноби) лишались права наследовать сословный статус отца.

Хорошо описана данная ситуация в сериале «Хон Гиль Дон», о котором я уже писала. Сам Хон Гиль Дон был сыном янбана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го чиновника) от матери низ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оэтому не наследовал от отца ничег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был старшим сыном, все наследство переходило только сыну от законной жен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емья вана не подпадала под этот закон и законными признавались все сыновья, неважно родились они от королевы или от наложниц. Ван мог передать престол любому из сыновей по своему желанию, но если он завещания не оставлял, корона переходила к его старшему сыну (в сериале как раз это и произошло и ваном стал сын от рабыни, а не от королевы).

Вторую меру, которую чосонские власти применили дл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итуации с янбанами – это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чиновничьих должностей. Сделано это было довольно своеобразно. В начале XV в. была введена система фиктивных должностей, существовавшая параллельно с обычной. Такая система существовала и в Корё, и в Китае. Янбаны, получившие такую должность, не получали чиновничьих наделов, не вели никакой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делали.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они считались полноправными янбанами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и даже иногда получали повышение, хотя сроки выслуги у них были большими, чем для настоящих чиновников. Занятие фиктивной должности ничего не давала янбану в материальном плане, но зато гарантировало общественный престиж и сохранением его семьей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ого статуса. Однако янбаны, получив фиктивную должность, все равно мечтали о настоящей.

Основой дохода янбанов было землевладение. Еще в 1391 г.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о «чиновничьих полях», по которому чиновники получали за свою службу земельный надел в столично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Наделы эти разрешалось передавать по наследству, однако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большинство пахотных земель в Кёнги оказалось в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чиновников и раздавать новые земли стало невозможным. Поэтому в 1466 г. был принят закон о «служебных полях», которы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что наделы будут даваться только находящимся 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й службе чиновникам и не будут передаваться по наследству.

Однако рост частного землевладения не остановился и скоро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не осталось земель, которыми могло распоряжаться государство. Раздача земель прекратилась и чиновникам стало выплачиваться жалованье. Также они существовали на свои личные доходы с землевладений. И хотя в Корее почти все чиновники-янбаны имели землю и крепостных, однако там почти не было крупных поместий, как в Западной Европе и России того времени (исключения были, но очень редко). Обычный корейский янбан владел небольшим отрезком земли всего с несколькими крепостными, а у самых богатых обычно было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сот крестьян. Не редкостью была и ситуация, когда янбанская семья вообще не имела крепостных. Многие бедные янбаны подрабатывали преподаванием в сельских школах и составлением официальных бумаг для неграмотных односельчан.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 СО

## Сеул потребовал от Пхеньяна не вмешиваться в ход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РК

Сеул потребовал от Пхеньяна не вмешиваться в ход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бвинив Север в стремлении вбить клин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избирателями.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главный печатный орган СК, в недавнем комментарии упомянула, что консервативный блок не должен быть допущен до власти на Юге. Как заявил в сре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в попытках Пхеньяна вмешаться в южно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нет ничего нового, но этим попыткам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ельно противостоять.

(KBS World)

## Малайзия депортирует 296 граждан СК за превыш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Малайзии сообщила 18 апреля о предстоящей депортации 296 граждан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 превыш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работали на стройках или в шахтах. После убийства в аэропорту Куала-Лумпура Ким Чон Нама, старшего бра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Малайзии ужесточила контроль з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выяснив, что многие из них в стране с просроченной визой. Им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добровольно явиться в 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которая отправит их на родину.

(KBS World)

#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합 [통]

# 함이다

72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재외동포재단 KOREAN NET WEB www.korean.net TEL +82-2-3415-0190 EMAIL gkn@okf.or.kr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Интервью

## «Моё новое шоу сахалинцы увидят в числе первых»

Анита Цой: Всё, что я пела и пою,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моей любви

- Анита, в это трудно поверить, но с момента выхода в свет вашего первого альбома минуло уже 20 лет. За это время было спето море песен. Интересно, а что из этого моря для вас стало самым любимым?

- Всё, что я пела и пою,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моей любви. Не хотелось бы говорить громких слов, но, поверьте, абсолютно каждая песня для меня значима, каждая - дорога... С «Полётом» Виктора Цоя, по большому счёту, и начался мой творческий полёт. После этой, во многом программной песни, я уже не имела права опускаться ниже. Летать – так летать!.. А как не любить «Береги меня» или «Небо», которые и спустя годы приходят на помощь в самые трудные моменты жизни? И, кстати, не только мне, что подтверждают эмоции слушателей практически на каждом из концертов, где я исполняю эти композиции. Всю себя до доньшка выплёскиваю и в песне «Твоя А» - очень искренней и правдивой... Кстати, если человек внимателен, то по моим песням он может узнать всю-всю правду об Аните Цой, - улыбается певица. – И всё же особая любовь –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й «Ариран», с которого, замечу, начинается моё нынешнее шоу «10/20».

- **Глядя на ваш жизненный ритм, не устаёшь удивляться, ну откуда эта маленькая женщина берёт силы и время, чтобы объять необъятное? Вы успеваете давать концерты,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шоу, вести телепрограмму «Свадебный размер», сниматься в кино и при этом максимум внимания уделять семье... Может быть, вы раскрыли секрет управления временем или в ваших сутках 25 и больше часов? Делитесь!**

- В моих жилах течёт «кропотливая» корейская кровь, которая не даёт расслабиться ни мне, ни моему коллективу. Все, кто попадает в нашу команду, знают, что Анита работает 24 часа в сутки, но при этом добивается желаемого результата. Мне приятно, что такого же результата добиваются и те, кто соглашается с моим «посуточным» графиком работы. Три-четыре года такого труда порой дают больше, чем десять лет спокойной жизни в другом коллективе. И мне не раз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Впрочем, мы живые люди, и иногда та-а-ак устаём, что отказываемся даже от новогодних корпоративов. Вот в этом году упаковали чемода-



ны, и 24 декабря убежали, уехали, улетели от всех подальше... А ещё очень помогает грамотн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жизни. Порой кажется, если бы я не стала артисткой, то двинула бы в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тив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прочем, какие мои годы, - улыбается Анита.

- **Ваше последнее шоу «10/20» посвящено Мечте. Можете сказать, что главная мечта вашей жизни исполнилась?**

- Начнём с того, что у меня, как и у многих других, было две главных мечты – создать счастливую семью и найти себя в любимом деле.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обе они сбылись, но... Пока они сбывались,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Теперь вот надо как-то их осуществлять.

- **Зрители по праву отмечают, что каждое ваше шоу грандиозно и по масштабам, и по исполнению...**

- И такие оценки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ы. Как приятны и награды от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ое из наших десяти шоу удостоено каких-либо наград. Особенно здорово было получать ShowTex AWARDS –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емию в области шоу-технологий. Замечу, что её присуждают не за песни, а за технически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еш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те самые песни.

Столь глобальный подход позволяет нам готовить в пятилетку всего одну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с которой мы потом гастролируем не больше трёх лет. Наше нынешнее шоу «10/20» сопровождают три фуры с декорациями и более чем 150 костюмами,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нашего балета.

- **О вашем балете ходят прямо легенды...**

- Это потому что он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и высококлассный. В нынешнем шоу постановками для него, например, занимались шесть хореограф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

ков планеты. Причём, современные танцы в «10/20» ставил легендарный Хосе Халивуд, работающий с Бьёнсе, Дженифер Лопес и другими топовыми артистами. А сколько танцевальных изюминок сочинил не менее известный сегодня Саша Могилев! И вообще, «10/20» - это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роект, в который столь удачно вплетены индийские, корейские и китайские напевы (в программе даже звучат корейские каягым и хигым), а также музыка в исполнении скрипача и пианиста из Японии.

- **Чем лично для вас стала программа «10/20»?**

- Ну, уж точно не итогом... Просто очередной творческий этап, на котором я уже совсем не та, что была в шоу «На Восток». На смену звонкой сексуальной девушке пришла житейски мудрая женщина. И этой мудростью я щедро делюсь со сво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 **Но ведь в зал приходят не только ваши ровесники...**

- Вот поэтому в программе у нас есть не только так называемый блок зрелости, но и блоки молодости и юности. В последнем, кстати, я позволяю себе дурачиться как подросток. Не ожидая, что мудрая Анита может вести себя словно ребенок, зал понемногу замирает, а потом эмоционально взрывается... Я стараюсь быть своей для всех.

- **Благодаря вашему шоу путёвку в жизнь получило столь необычное движение как «Человек мечты» шоу «10/20». Как говорится, кто, что и зачем?**

- Идея вставить в программу интересную социальную историю, можно сказать придумка коллективная. А заключается она в следующем.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где проходит наш концерт, заранее ищется Человек мечты, который на время и становится (ничего об этом, правда, не подозревая) героем нашего шоу и, естественно, своего родного города. В Краснодаре таким героем, например, стал всем известный торговец зеленью дядя Миша.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о открылось, что этот добрейшей души футбольный фанат готов на последние деньги подкармливать овощами и фруктами любимых игроков. И никому в голову не приходило, что потрясающей интеллигентности беженец с 20-летним стажем... не имеет в этом городе своего угла. Ни-ка-ко-го! Эта история тронула краснодарцев до слёз, и прямо на концерт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

ние собрать дяде Мише на квартиру. И ведь собрали! Недавно мне сообщили, что мужчина оформляет документы на СВОЁ жильё.

А в Волгодонске героем нашего времени и своего города стал 27-летний газоэлектросварщик, разработавший новую технологию сварки, за что и получил в конкурсе Росатома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Своим шоу мы мотивируе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если хотите, приближаем к их мечте. Видя реальные примеры героев, которые живут рядом с нами, люди начинают понимать, что и они тоже могут сделать что-то стоящее. Поверь в себя – вот, если коротко, суть «Человека мечты».

- **Несмотря на свою активную гастро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ы рискнули выступить и как режиссёр-постановщик Гала-концерта, посвященного 150-летию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было и приятным, и очень волнительным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гружаясь в тему, я перекопала горы источ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архивных. И чего я там только не нашла! Даже среди пожилых сегодня мало кто знает, что в годы войны корейцев на фронт не пускали, и они туда всеми правдами и неправдами отправлялись под чужими якутскими и бурятскими фамилиями. И сражались так,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то из них не остался без наград. А одна кореянка, также под чужим именем, работала даже во фронтовой бригаде Клавдии Шульженко... Я с огромной любовью и трепетом готовила этот юбилейный концерт. К сожалению, нечто подобное не удастся сделать к 8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Среднюю Азию, поскольку в это время буду на гастролях в Европе. Но уже сегодня мой коллектив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график выступлений и отпустить меня на один день в Россию, где я и смог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амятном концерте. Ну а нынешней весной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побываем со своим шоу в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где до сих пор живут наследники тех самых вынужденн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 **Другая тема. У многих на слуху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помощи детям «Анита». Интересно, как он появился на свет?**

- Наверное, ничего бы не было, не получи я в конце 90-х серьёзную травму по-

звоночника. В процессе реабилитации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дной из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могающих детям с ДЦП. И вот однажды меня попросили с ними позаниматься, и я сходу согласилась, о чём, каюсь, пожалела уже на первом же уроке. Мне нужно с ребятами, стоящими на костылях, вокалом заниматься, а у меня ком в горле и в глазах всё расплывается. Сослалась на срочные дела и убежала. Лишь со второго раза у нас пошли нормальные занятия. А какой в итоге получился номер! Вы бы видели глаза родителей, когда их 5-12-летние дети в буквальном смысле слова потребовали привести их на сцену и унести с неё... костыли и ходунки. В итоге они мужественно простояли всю песню и при этом выглядели настоящими артистами.

А потом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замечательными людьми из Движения добрых дел Lions club, при помощи которых и был откры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Анита». Поначалу мы помогали только «опорникам», но как было отказать сиротам или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нуждающимся в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К сожалению, сегодня уже не получается столько времени уделять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 своего очень серьёзного ежедневного и методичного подхода. Впрочем, не исключаю, что когда я выйду на пенсию, полученные мной навыки вновь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 **Многие ваши поклонники помнят десяти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интервью в одной из островных газет, в котором вы обещали приех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де больш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о своей новой программой. Но что-то тогда пошло не так и гастроли, к большому огорчению, были отменены.**

- Поверьте, у меня сожалений было не меньше, но... Не сложилось. Но я этот долг хорошо помню. Могу сказать одно: весной 2018-го должна состояться премьера нового шоу,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не тольк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о и в Китае, Японии. Ну а начнём мы свой тур с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его программе стоит в числе первых. Впрочем, если откроется гастрольное «окошко», то, думаю, мы сможем махнуть на Сахалин и просто с концертом-путешествием по песням прошлых лет.

Беседовала  
Елена ЧЕ

##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готовятся к пожароопасному сезону

Засед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и ликвидации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обеспечению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течение прошлого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периода сотрудники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619 раз выезжали на тушение загораний сухой травянистой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в граница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Годом ранее таких случаев было гораздо меньше, всего 444.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выез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Углегорском, Холм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В связи с этим, как было озвуч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местные власти с помощью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листовок оповещают население о действующих правилах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го режима. Также в районах ведется создание специальных патрульных и патрульно-пешеходных групп,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 графику проверять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детски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садоводческие, огороднические и дач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а также места массового отдыха населения, прилегающие к лесам.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доложили о том, какие мер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нимаются на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екомендовал обрат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н напомнил о недавнем происшествии в совхозе «Заречное», где огнем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300 тонн сена.

Анализ причин возникнов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риродных пожаров показал, что захламленность территорий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а также примыкающих к лесным массивам, автомобильным и железным дорогам, линиям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негативно влияет на экологическую и пожар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Поэтому в регионе с 15 по 28 мая проведут профилактическую акцию «Чистый лес – территория без огня». В ее рамках местные в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организуют уборку мусора и сухой растительности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 городов и лесных массивов очистят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е разрывы, перекроют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съезды в лес, установят шлагбаумы и аншлаги. В лесах поблизости от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дорог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пожарной техники, посадочные вертолетные площадки, просеки, противопожарные разрывы и минерализованные полосы.

Эта акция позволит не только провест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работы в начале пожароопасного сезона, но и проверить готовность всех служб и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 подчеркнул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здрава страны Наталья Хорова оценила оснащение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мест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Хоровой на остров прибыл гендиректор ФГБУ «Национа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ради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А.Каприк и друг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ого НИИ. Они проверяют, как ведётся работа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ервым объектом стал онк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гости уделили радиологическому каньону и новому хирургическому корпусу медицин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 целом на Сахалине ситуация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илась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По итогам 16-го года наблюдается сокращение смертности от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туберкулёза, снизилась младенческая смертность, – отметила Наталья Хорова. – А вот онкологии надо уделять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Условия для этого есть. Уровень оснащения диспансера лучше, чем во многих федеральных клиниках.

Усилить контроль за онкозаболеваемостью и направить все силы на снижение смертности от злокачественных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и нацелить амбулатор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ое звено на выявление патологий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 такие поручения ранее д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лег Кожемяко островному минздраву. Одной из мер стало внедрение в регионе системы выплат медицин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а выявленные онкозаболевания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В радиологическом каньоне собраны все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которые есть в современной медицине.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уделили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работе каждого аппарата, его нагрузке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 каньо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виды ради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К примеру, есть линейный ускоритель для лучевой терапии. Он позволяет точно направлять пучок высоко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нтгеновских лучей с локализацией до 5 миллиметров, – сообщ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иктор Ли. – Сейчас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агнитно-резонансного томографа. На это влияют несколько фактор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отсутствие скачков в напряжении электричества, уже заказаны источники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питания.

Парк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лечеб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скоре пополнится, в новом корпусе уже установлен компью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Машина обладает большим потенциалом и московские профессора предложили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 том, чтобы обследоваться на ней 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ациенты диспансера. Участники делегации осмотрели и стерилизационны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установлен в этом же здании. Специалисты относят его к сегменту премиум-класса.

Комплекс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ть сроки обработки инструментария. Нестерильный материал будут мыть в обычных и ультразвуковых мойках. Есть пароструйный модуль,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продуть даже самые тонкие отверстия хирургиче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сжатым воздухом, – рассказ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Уровень самых передовых зарубежных клиник, – так оцен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столичные гости.

Всего здесь семь операционных, оборудованных самой современной техникой от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Здесь установлена особая система вентиляции и воздухоподготовки, она позволит достичь оптимальных параметров стерильности. Здесь есть эндоскопические приборы, а специальные видеосистемы дадут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елемедицины. Открыть корпус планиру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все системы и оборудование, решить вс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Чтобы впоследствии не возникало никаких проблем с эксплуатацией этого здания. А у врачей пока есть время на повыш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для работы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 подчеркну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Дерновой.

Мы готовы оказать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поделиться методиками. Видно, что коллектив и руководство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всё здесь развивалось. Это один из основных моментов. Для лечения здесь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Надо повышать выявляемость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И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е зависит от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 подвёл итоги осмотра гендиректор ФГБУ «Национа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ради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Специалисты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регулярно проходят стажировку в ведущих центра страны и за рубежом. В лечебном учреждении занимаются и решением кадровых вопросов, в целом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ь врачами здесь сейчас составляет – 62% процента. В хирургической службе показатель более высокий – 83%. Возможно, что скоро эти цифры изменятся. Интерес к работе в лечебном учреждении проявляют выпускники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завоевали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имена конкурсантов, которы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V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первые в 2017 году вместо полуфиналов по федеральным округам состоялись отборо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блокам компетенций в 8 регионах, выбранных экспертной комиссией: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Ле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Якутия), Республика Чувашия,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и Ульяновская область провели отборо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компетенциям 6 блоков профессий. За право выйти в финал боролись «лучшие из лучших» –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ервенств из 82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тбороч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финал вы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7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их число вошла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Даниил Пленокос (Сахалинский строительный техникум), Константин Моисеенко и Виктор Киреев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й колледж СахГУ)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ись с конкурсными задани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отбороч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и завоевали право участия в финале V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трех компетенциях: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Электромонтаж» и «Хлебопечение».

Финал чемпионата пройдет с 16 по 19 мая в г.Краснодаре по 109 компетенциям. По его итогам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лучшие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реди 1200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конкурсантов.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чемпионата войдут в расширенный состав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WorldSkills Russia, из которого впоследствии будут отобраны российские участники мировых чемпионатов по профмастерству WorldSkills Abu Dhabi 2017 и WorldSkills Kazan 2019.

Участие в подобных чемпионатах позволяет приобрести бесценный опыт, представить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и свой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готовки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и ДП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ина Нерсисян.

Отметим, что финал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 это самые масштабные в Росси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о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н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риентацию молодежи и внедрение в систему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луч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актик.

## На Сахалине выбрали учителя года

18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нцертом и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ей награждения завершился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7». В регионе он проводился уже в 27 раз. За победу в этом году боролись 24 педагога из 10 районов: Ани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Куриль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Томар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Это учителя математики, истори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химии, биологи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Среди конкурсантов были также воспитатели, учителя-логопеды и психолог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технологии и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Учитель года» привлек внимание сразу 6 мужчин-педагогов, работающих не только в школах, но и детских садах. 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молодых участников была утверждена новая номинация –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ебют».

В этом году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значительно «помолодел» – из 24 участников у нас было 14 дебютантов со стажем от 1 года до 5 лет. Все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два этапа. Это заочный тур,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с 16 марта по 6 апреля. Учителя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авыки поль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 размещали на Интернет-ресурсах авторские разработки и писали сочинение в жанре эссе, – сообщила Людмила Сакович, секретарь большого жюри, про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 Далее с 7 по 17 апреля проходили испытания в рамках очного тура. Здесь все начиналось с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и», где педагоги представляли себя. Далее были методические семинары, открытые урок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Кроме того, учителя разрабатывали и защищали собствен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Оценивали конкурсантов четыре состава жюри – составленное из опытных педагогов большо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куда вошли победители прошлых лет, предметное – из учителей-предметников и детское – из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пытаний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лауреата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9 сахалинских педагогов.

Приз от предметного жюри достался Ксении Буровой, учителю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гимназии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иплом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отмечена Валерия 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школы №7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бедитель «народ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итогам Интернет-голосования на сайте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 Людмила Кубан, учитель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миров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ы школы №1 Тым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 наградой Викторией Курчатovou, молодого воспитателя детского сада №55 «Веснуш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ебют» одержал Виктор Ведяшкин, инструктор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еще одного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Ромашка».

Лауреата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Дмитрий Оковенко, педагог-психолог из школы №6 Холмска, Елизавета Стельмах, учитель химии лицей «Надежда» этого же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и Андрей Тишевский, учитель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гимназии №1 имени А.С. Пушк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 вышло, что 10 лет назад мы с вузовскими конкурсанками стояли у кабинета, где проходили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Учителя года» и с огромным интересом наблюдали за действием через щель в дверном проеме. Тогда я подумал: вот бы здорово тоже оказаться там. Прошли годы и мечта сбылась. В этом году я провел 8 удивительных дней с замечательными коллегами, у которых многому научился. Спасибо жюри за высочайшую оценку моей работы, – сказал один из лауреатов Андрей Тишевский.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7» признана Елена Бегишева, учитель физики и информатики школы №1 Шахтерска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Глава области вручил ей диплом и статуэтку большого хрустального пеликана, а также ценные призы. В сентябре 2018 года он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уже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м этап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школы предложила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ластном конкурсе. Было сложно, но интересно.

Самым непрост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меня стал открытый урок. А самым строгим жюр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 детское, – рассказала Елена Бегишева.

Сегодня вспоминаются известные строк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Андрея Дементьева: «Учителями славится Россия, ученики приносят славу ей». Надеюсь, в год 70-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ши ученики принесут славу своей малой Родине. Мечтайте, творите, дерзайте и помните: у вас все обязательно получится, – обратилась со сцены ко всем конкурсантам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제19회 재외동포 문학상작품 공모

2017년「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들에게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한민족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시행하는 문학상 공모전에 재외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주최 및 주관: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 1. 응모자격

- 성인부문
    -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
  - 청소년부문
    -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학교: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의 재외동포 청소년
    - 중·고등학교: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재외동포 청소년
-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우수상, 가작, 장려상 수상자는 응모 가능)

### 2. 공모 분야

구분	분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공통사항
성인	시	3~5편	제한없음	* 미발표 한글 창작물 * 원고분량 80%미만 또는 150% 이상은 탈락
	수필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4매 내외)	
	단편소설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13매 내외)	
청소년	중·고등학생	글짓기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3매 내외)
	초등학교	글짓기	3편 이내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작품응모서식 2매 내외)

※ 청소년부문은 산문 및 운문 형식 제한 없음  
※ 매수는 원고지 또는 작품응모서식 기준 중 한 가지 반드시 충족

### 3. 작품 주제

- 성인부문: 자유주제
- 청소년부문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내가 사는 도시(지역) 소개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자랑스러운 한국인, 전반적인 한국 및 재외동포에 관한 주제
  - 기타 자유로운 주제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재외동포 관련) 등

### 4. 심사 및 시상내역

구분	상별	인원(명)	시상내역	비고	
성인	대상	3	300만원, 상패	장르별 1인	
	우수상	6	200만원, 상패	장르별 2인	
	가작	9	50만원, 상패	장르별 3인	
청소년	중·고등학생	최우수상	1	100만원, 상패	
		우수상	2	50만원, 상패	
	장려상	3	30만원, 상패		
	초등학교	최우수상	1	100만원, 상패	
		우수상	2	50만원, 상패	
		장려상	3	30만원, 상패	
한글학교	특별상	2개교	200만원, 상패		

○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 (2차) 예심 → (3차) 본심  
 -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시상내역: 총 30명 및 한글학교 2개교 선정, 총 상금 3,530만원  
 ※ '한글학교 특별상'  
 - 청소년 부문에 응모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한글학교에 수여  
 - 학교별 본심 진출작품수 및 수상작품수를 점수화하여 선정

###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발표: 8월 중순 수상자에 한 해 개별 통보, 코리아넷 홈페이지 공지
- 시상: 수상자는 거주국 관할공관에서 시상식 개최 예정

### 6. 신청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2017.4.1.(토) ~ 5.31.(수), 한국시간 기준(마감일 업무 요망)
-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공지사항 또는 팝업존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작품 공모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버튼 클릭

### 다. 제출 서류

- 응모작품
  -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http://www.korean.net))에서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 첨부파일명은 응모자명, 응모분야, 작품명 순으로 한글과 띄어쓰기로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수 문자 사용 불가)
  - 예시) 홍길동 단편소설 홍길동전
- 재외동포 확인서류
  - 시민권자: 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 영주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자: 거주여권 사본
  - ※ 사진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 경우 기간연장 기재면 포함
  - ※ 동반자 여권 소지자는 본인 및 보호자 사진이 있는 면 모두 제출
- 라. 문의
  - 사업 관련: 홍보조사부 재외동포문학상 담당자 +82-2-3415-0097 / [culture@okf.or.kr](mailto:culture@okf.or.kr)
  - 시스템 관련: e-한민족사업부 재외동포문학상 시스템 담당자 +82-2-3415-0197

### 7. 기타 및 유의사항

- 인원 1명이 1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응모 가능하며, 신예·기성작가 등 제한 없이 응모자격 해당자는 모두 응모 가능함
- '한글학교 특별상'은 재단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정규(주말)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함
-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나,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응모자와 협의의 통하여 재단에서 양수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함
-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주최측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음
- ※ 수상작은 수상집 책자(비매품)로 출간되며, 재단 사이트에도 게재 예정
- 제출서류 미비,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미흡 할 시, 응모 인정 하지 않음
- 응모 서류 및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출품자가 지게 됨
  - 국내외 여타 기관 또는 매체(신문, 인터넷매체 등)에 기 발표 작품
  -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재외동포재단)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0

# 한국어로 번역된 푸시킨의 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전호의 계속)

(5) -(으)로 미루어(보아) "исходя из...", "судя по..."

### Примеры:

장관의 말로 미루어 보아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Судя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 это лучший выход.

사태를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 Исходя из ситуации, я принял следующие меры.

금년 경제 성장률의 보고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 Судя по отчету в темпа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за текущий год,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быстро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 쓰기 연습 Письменные упражнения

1. 보기와 같이 '-(으)려나 모르겠다'를 사용하여 밑줄 친 부분을 고쳐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아구찜이 너무 매워서 동생이 먹다.

→ 아구찜이 너무 매워서 동생이 먹으려나 모르겠어요.

(1) 우리 집 쩍이 너무 달아서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한국 선생님께서 드시다.

→ 압고기볶음을 만들었는데 남편 입에 맞다.

(3) 어제 백화점에서 드레스를 샀는데 동생 마음에 들다.

(4) 오늘 수업 시간에는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준비한 영화를 재미있게 보다.

(5) 친구들과하고 밤 늦게까지 놀았는데 내일 제 시간에 일어나다.

2. 보기와 같이 '-(으)려니 하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저는 친구 동생이 하도 의젓해서 (대학생이다) 했다.

→ 저는 친구 동생이 하도 의젓해서 (대학생이려니) 했다.

(1) 출발하고 시간이 꽤 지나 지금쯤은 한국에 (도착했다).

(2) 시장에 물건이 너무 다양해서 오랜만에 내 취향에 맞는 걸 (찾을 수 있다).

(3) 올해 한국어 시험에 붙으면 좋다 /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있다.

(4) 이제 동아리 활동을 그만 두면 좋다 /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있다.

(5) 호박꽃도 꽃이다 / 사람들은 장미꽃만 꽃이라 한다.

3. 보기와 같이 '-(으)려만는'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보기 너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력을 안 해서 못 받는다.

→ 너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려만는 노력을 안 해서 못 받는 것이다.

(1) 비가 안 오면 오늘 바닷가에 가다 /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안 되겠다.

(2) 지금 저녁 먹어야 할 시간이다 /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안 되겠다.

(3) 올해 한국어 시험에 붙으면 좋다 /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있다.

(4) 이제 동아리 활동을 그만 두면 좋다 /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있다.

(5) 호박꽃도 꽃이다 / 사람들은 장미꽃만 꽃이라 한다.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фсоюзная сторона организует и проводит Первомай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ак и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в 2017 году у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чного шествия будут разделены на две колонны, которые из разных точе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чнут движени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и объединятся около здания городской мэрии.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лонн, участвующих в шествии,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1 мая с 10:00 до 10:3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Центральная колонна берет свое начало на перекрестк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проспекта и ул. Чехова. Место сбора южной колонны – перекресток ул. Ленина и ул. Поповича.

Шествие продлится с 10:30 до 11:00, после чего на различных площадк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чнутся различны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ращаем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профсоюзная сторона рекомендует участникам шествия в ходе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омай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использовать утвержденные лозунги, отражающие социально-трудовую тематику.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союз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тверждены 25 тематических лозунгов.

## 사할린의 출생률, 러시아 평균치를 초과

사할린은 러시아 극동 7개 지역 중 출생률(총 출생비율 지표)이 러시아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러극동개발국 홍보실의 정보에 따르면 아무르주, 유타인자치주, 하바롭스크주, 야쿠치아공화국, 캅차트카 및 추코트카 등 지역들이 출생률 상승으로 주요 명단에 올랐다고 러연방 극동개발성 세르게이 카차예브 차관이 극동지역들과의 영상회의에서 알렸다.

“2025년까지의 극동지역 인구통계정책 구상안에 따라 출생률 목표 지표가 정해진 가운데 총출생률이 2020년에는 1.95명, 2025년에는 2.05명을 달성해야 한다”며 “7개 극동지역의 출생률 수치가 러시아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있다”고 차관은 언급했다.

카차예브에 의하면 현재 오직 사할린주에만 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가정에 둘째 아이 출생시에 주택마련을 위한 일시 보조금 1백만 루블이 제공되고 대출의 특혜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와같은 일시금 지급은 5명 이

상의 다자녀 가족에게 해당되며 이런 가정은 주에서 특별임대주택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세르게이 카차예브는 모든 지역들이 인구통계적 상황개선을 위해 더 나은 실례들을 적극 활용하길 호소하였다.

“출생률 지표 달성은 지역적 계획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 있다. 2016년도 출생률이 감소한 이유 중에는 현행 조치들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역들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러극동개발성 차관은 강조했다.

## На Сахалине рождаемость превысила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России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число семи регионов ДФО, в которых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показатель суммарного коэффициента рождаемости) превысил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информации пресс-службы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в список лидеров вошли также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ия,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Якутия, Камчатка и Чукотк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на селекторном совещании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регионами замминистра Р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ергей Качаев.

- Проектом концепци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установлены целевые показатели рождаемости. Суммар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к 2020 году должен составить 1,95 и 2,05 к 2025 году, - отметил замминистра. - Мы видим, что в се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выш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го.

По словам Качаева, эффектив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егодня предусмотрены лиш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ждении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регион предоставля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1 млн рублей для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при приобретении жилья. Возможно получение льготной ипотеки. Это также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имеющим пять и более детей. Также в области семь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з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специаль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ергей Качаев призвал регионы использовать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 Достиж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рождаемости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в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планов. Снижение уровня рождаемости в 2016 году показало, что действующие меры недостаточны. Однако сейчас в регионах, за редким исключением, н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главы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